

전국 힙스터 총집합...광주 '스트리트컬처'에 빠진다

일본 댄스그룹 츠바키의 리더 '아카넨', 국가대표 비보이 '윙', 세계 최고의 락킹 댄서 'P-LOCK (피락)'...

세계 스트리트 댄스계를 이끄는 전설들이 광주에 집결한다.

초여름 무더위를 날릴 젊음과 열정의 거리문화 축제, '2025 광주 스트리트컬처 페스타'가 5일부터 8일까지 광주 곳곳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세계적 댄서들이 대거 참여하는 스트리트 댄스 배틀을 중심으로 디제잉 공연, 길거리 농구, 플리마켓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져 시민들에게 역동적인 스트리트컬처의 매력을 선사한다.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것은 국내외 1290명의 댄서들이 출전하는 1대1 댄스 배틀 '배틀라인업10'. 5일부터 8일까지 ACC 예술극장 등에서 열리며, 힙합·락킹·팝핑·락킹·오픈스타일 등 5개 부문에서 박

진감 넘치는 토너먼트가 펼쳐진다. 배틀 참가자들은 예선전을 거쳐 축제 마지막 날인 8일 결승 무대에서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우승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의 상금과 다양한 상품이 수여된다.

지역민과 함께 즐기는 야외 팀 퍼포먼스 경연도

눈길을 끈다. 7일 오후 5시 5·18민주광장에서 본선 무대가 열리며, 전국에서 모인 실력과 댄스팀들이 다채로운 스타일과 기량으로 합한 에너지를 전한다.

이번 배틀의 심사위원으로는 예능 '스트릿 우먼

파이터2'에 출연해 주목받은 락킹 댄서 왁시와 일본의 아카넨을 비롯해, 프랑스 힙합계의 대부 조셉고(JO SEPHGO), 미국 비보이씨밋 우승자 주니어부갈루(JR.BOOGALOO), 감각적인 코레오그

라피로 K-POP아이돌과의 꾸준한 협업을 보여주고 있는 댄서 디노(DINO) 등 화려한 라인업이 포진했다. 이들은 수준 높은 심사로 경연의 긴장감과 완성도를 더한다. 사회는 '스트리트댄스계의 유재석'이라 불리는 MC 두락이 맡는다.

심사위원들은 직접 무대에 올라 '저지쇼(Judge Show)'를 선보이며 현장의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달굴 계획이다. 세계 최정상 댄서들의 폭발적인 퍼포먼스가 관객들에게 또 하나의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축제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무대도 마련됐다. 6일에는 ACC 예술극장에서 400여 명의 어린이·청소년이 2대 2 팀 배틀 형식으로 실력을 겨루는 '키즈&유스 배틀'이 열린다. 이어 7일에는 5·18민주광장에서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나뉘어 총 39개 팀이 참여하는 팀 퍼포먼스 경연이 펼쳐져 젊은 열정과 끼를 마음껏 발산할 예정이다.

댄스 배틀 외에도 다양한 스트리트컬처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즐길 거리가 이어진다. 6·7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는 '릿츠플로피 3.0'이 열린다. 밴드 글렌테크, 싱어송라이터 윤마치, 조지 등이 참여하는 라이브 공연과 함께 스트리트 패션 브랜드 전시, 푸드 콘텐츠, 주제별 토크 세션이 진행된다. 관객들은 '나만의 취향'을 공유하고 발견하는, 감각적이고 자유로운 시간을 누릴 수 있다.

이밖에도 5·18민주광장과 김대중컨벤션센터 일원에서는 길거리 농구, 플리마켓, 푸드트럭 등 시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펼쳐져 도심이 활기찬 축제의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 스트리트컬처 페스타는 이제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울리는 여름 대표축제로 자리잡았다"며 "젊은 세대의 감성과 에너지가 광주 도시를 채우고,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아카넨

젊음·열정의 거리문화축제 '2025 광주 스트리트컬처 페스타'

5~8일 5·18광장 등 곳곳서 스트리트댄스·전시 등 문화 향연



'2025 스트리트컬처 페스타'가 5~8일 ACC와 5·18민주광장 등에서 펼쳐진다. 지난해 댄스배틀의 모습. <광주시 제공>



왁시

디노

혜성·별·궤도·우주 그리고 빛 '별의 항해'

오혜성 개인전, 별 모티브 25점 전시 7월7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어린 시절 끝없이 펼쳐진 밤하늘을 바라보면 경이로웠다. 광활한 우주는 어디에서 시작해 어디까지 펼쳐져 있을지 자못 궁금했다. 점점이 박힌 무수히 많은 별들이 발하는 빛은 신비하기 그지없었던 것이다.

오혜성 작가의 '별' 그림을 보면, 유년의 시절 보았던 별에 대한 단상이 떠오른다. 깊고 파란 하늘에 종종히 박힌 별들은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다.

오혜성 작가가 '별의 항해-혜성, 별, 궤도, 우주 그리고 빛'을 주제로 5일부터 7월 7일까지 전시를 연다.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펼쳐지는 이번 전시는 별을 모티브로 한 25점을 선보이는 자리다. 혜성 작가가 '혜성'을 모티브로 여는 전시인만큼 이색적이다.

작가는 별들을 자신의 존재를 성찰하는 뜻대로, 기준점으로 삼는 듯하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또는 삶의 행로를 이탈해 어디로 가야할지 모를 때 불현 듯 밤하늘의 별들 속에서 방향을 찾기도 한다.

비유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누구나 하나의 별이다. 저마다 빛나는 별로 태어났지만, 세상의 일에 얽매이고 좌절해 본래의 자신을 잃어버리기 일쑤다. 한동안 어둠에 갇혀 있기 마련이지만, 언제고 캄캄한 하늘을 밝히는 별처럼 존재의 빛을 드러내는 순간과 마주하기도 한다.

작품을 바라보고 있으면 우주를 향해 무한히 열린 세상과 조우하게 된다. 별들이 발하는 따스하면서도 밝은 기운은 옛 친구를 만나는 듯한 편안하면서도 깊은 친밀감을 준다.

한편 김아연 큐레이터는 "이번 전시는 우주의 별빛을 매개로 인간의 존재, 삶의 유한성 등을 다층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자리"라며 "작품도 감상하고 광활한 우주와 별빛이 건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볼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C1996C-1'

한편 오 작가는 계원예술대를 졸업했으며 현재 홍익대 대학원 예술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여러 차례 개인전과 '모네타프 창조적 진화' 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꽃잎 위에 엮은 여성들의 목소리 '화전기'

여우창작소, 5~7일 미로극장

꽃잎 위에 엮은 기억들이 무대 위로 하나둘 피어난다.

지역 여성 연극인들의 단체 여우창작소가 평범한 여성들을 주인공으로 한 연극 '화전기'를 5일부터 7일까지(평일 오후 7시30분, 토요일 오후 4시) 광주 동구 미로극장 2관에서 선보인다. 광주문화재단의 '2025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지원을 받아 제작된 작품이다. 배삼식 극본, 이은준 연출.

이번 공연은 1950년 4월, 어머니 김씨의 환갑을 맞아 화전놀이에 나선 아홉 명의 여성들이 꽃을 따고 전을 부치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속 이야기들을 나누는 과정을 그린다. 딸과 며느리, 고모, 이웃 여인들까지 모인 한 자락의 봄날. 환한 꽃잎 아래 나누는 말들은 때로는 웃음을, 때로는 깊은 침묵을 불러온다.

작품은 격동의 현대사를 지나오는 동안 감춰졌던 여성들의 일상과 감정을 조명한다.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낸 여성들의 소박하지만 단단한 연대가 관객들에게 작은 온기를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극 '화전기'의 한 장면. <여우창작소 제공>

이은준 연출가는 "지역 여성 연극인들이 진심을 다해 준비한 연극"이라며 "이번 공연이 지역민들의 따뜻한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전석 무료. 사전예약.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문학과 미술·음악의 결이 하나로 어우러진다

광주예술의전당, 명작시리즈 세번째...24일 '달과 6펜스'

"땅에 떨어진 6펜스를 찾다 보면 하늘의 달을 보지 못한다."

한 예술가의 내면과 자유를 향한 갈망이 문학과 미술, 음악을 타고 무대 위로 피어난다.

광주예술의전당은 2025 GAC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명작시리즈' 세번째 프로그램으로 오는 24일 오전 11시 전당 소극장에서 '달과 6펜스'를 선보인다.

바쁜 일상 속 예술이 건네는 여유와 통찰을 제안해온 '11시 음악산책'은 이번 무대를 통해 문학적 서사에 음악과 회화의 향기를 덧입혀 관객에게 보다 깊은 사유의 시간을 선물한다.

이번 공연은 '달과 6펜스' 속 주인공 스트리랜드의 삶을 따라간다. 모든 안정을 내던지고 오직 예술을 위해 태평양 섬으로 떠났던 그는, 실제로 화려한 금융가에서 원시적 자연으로 예술적 여정을 떠난 화가 폴 고갱의 삶에서 영감을 받은 인물이다.

무대에서는 고갱의 대표작 '우리는 어디서 왔고,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가'가 교차하며 문학과 미술, 음악의 결을 하나로 어우러진다. 피아니스트이자 클래식 연구가 안인모가 해설을 맡아 관객들이 예술가의 내면을 향한 인문학적 여정으로 이끈다.

음악은 예술가의 이중적인 내면과 감정의 흐름을 따라 흐른다. 차이코프스키의 현악사중주 1번 D장조 2악장이 서정적 문을 열고,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오중주 A장조 2악장과 브람스의 클라리넷 삼중주 a단조 1악장이 고독과 열망 사이의 여백을 채운다. 쇼스타코비치의 왈츠 2번, 브람스 피아노 5중주 f단조 3악장은 예술을 향한 강렬한 열정을 그려내며, 삶의 본질을 묻는 문학의 질문에 답한다.

2021 미국 피쉬오프 챔버뮤직콩쿠르에서 한국 팀 최초로 전 부문 대상(Grand Prize)을 수상해

세계를 놀라게 한 실내악 그룹 '리수스 콰르텟'이 연주자를 맡는다. 이혜니(제1바이올린), 유지은(제2바이올린), 장은경(비올라), 마유경(첼로)으로 구성된 이들은 피아니스트

콘서트 가이드 안인모.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김소영, 클라리넷 연주자 김우연과 함께 감성의 무게를 더욱 풍성하게 쌓아 올린다.

안인모는 "이 시리즈는 고전을 더욱 깊게 들여다보는 예술적 체험"이라며 "그림 한 점, 음악 한 소절, 문장 하나에서 시작되는 사유가 관객의 마음속 깊은 파장을 일으키길 바란다"고 전했다.

R석 2만원, S석 1만원, 광주예술의전당 누리집 예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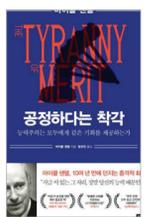
대통령에 추천 책 1위 '소년이 온다'

알라딘, 독자 대상 조사... '어른 김장하 각본' '공정하다는 착각' 순

한강 소설 '소년이 온다'가 인터넷서점 알라딘 독자들이 뽑은 새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 1위에 올랐다.

알라딘은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독자 3636명을 대상으로 새 대통령에게 권하고 싶은 책과 그 이유를 추천받은 결과 '소년이 온다'가 1위, '어른 김장하 각본'이 2위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소년이 온다'는 지난해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의 대표작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소설이다.



독자들은 댓글을 통해 "그날의 아픔이 반복되지 않을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오늘을 있게 해 준 5월의 영혼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등의 추천 이유를 남겼다.

미국 하버드대 교수이자 정치학자인 마이클 샌델과 스티븐 레비츠키의 책도 다수 추천 받았다.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은 3위를, '정의란 무엇인가'는 5위를 차지했으며 레비츠키의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9위)와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10위)도 10위 안에 들었다. /연합뉴스